

폭우에 광주 도심 마비… ‘시간당 80mm’ 물폭탄

집중호우에 저지대 침수 피해
“순식간에 발목까지 물 차올라”
북구청 어린이집 원생 긴급 대피
‘경보’ 2시간 만 도로 87곳 잠겨

“짧은 시간에 갑자기 빗물이 차 올랐어요. 평소처럼 이동하다 이렇게까지 물이 차오른 걸 본 건 처음이네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서 이동 중이던 최진훈(21)씨는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빗물을 급히 피하며 말했다. 최씨는 “방금 시내버스를 이용했는데, 폭우로 인해 경로를 우회해야 했다”며 “자주 오가는 길에서 이렇게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최대 203.5mm(광주 북구청 일대)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심 침수와 시설 피해를 일으켰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저지대인 동구 계림동, 북구 중흥1동, 서구 유촌교 일대 등으로 이곳은 침수와 교통 통제가 동시에 이뤄졌다.

또 계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는 비로 인해 도로가 들뜨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면서 경찰이 긴급히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주민 김모(52)씨는 “도로가 최근에 새로운 보도블럭으로 포장했는데, 아파트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광주역 앞 인근 도로가 침수돼 시민들이 힘겹게 자전거를 이끌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양배 기자

입구부터 깨져서 불안하고 통행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유촌교 주변도 상황도 심각했다. 하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며 산책로를 덮쳤다. 현장을 둘러보던 주민 배모(75)씨는 “하천 물이 넘쳐 산책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파트까지 피해가 올라 걱정”이라고 했다. 같은 곳의 주민인 한모(52)씨는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하루종일 비가 내려 물이 범람한 적은 있지만 오전 짧은 시간 많은 비로 산책로까지 물이 찬 경우는 처음”이라며 “토요일까지 비가 온다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구에 쏟아진 비로 인해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1층에 물이 들어차 원생 60여명이 같은 건물 4층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목재로 이뤄진 어린이집 내부와 각종 교구가 비에 젖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된 것을 놓고 홍수 예방 인프라 관리 마비와 지하철 공사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나왔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상가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중흥동 인근 한 아파트의 경비원 박모(70)씨는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낮 12시께 되니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며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하철 공사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60) 씨도 “비가 오면 물에 잠긴 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심하다”며 “기존 배수 구조가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호우에 따라 도심 내 위험지역 499곳을 긴급 통제했다. 또한 하천 징검다리과 진출입로, 지하차도 등을 중심

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경찰·소방이 총출동했다. 이날 광주시는 오후 3시 기준, 도로침수 141건, 도로장애 4건, 건물침수 78건, 인명구조 3건, 기타 15건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주택 침수 10건, 도로 침수 5건, 가로수 전도 7건, 기타 17건 등 총 39건의 안전조치를 이행했다. 관내 국립공원과 여객선, 하상도로, 둔주주차장 등을 통제했고, 비상근무자 총 819명을 투입해 상황관리를 2단계로 격상해 대응했다.

정유철·정승우 기자

호우 계속, 광주·전남 19일까지 최대 300mm 비

시간당 80mm 이상 비

광주·전남 지역은 19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18일은 200~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많은 곳은 400mm 이상까지 비가 오겠다.

토요일인 19일 역시 200~300mm의 비가 예보됐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강수량이 예보됐으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광주 북구 중흥1동 일대가 폭우로 잠겨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승우 기자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

일 때도 있겠다.

17일 최저기온은 22.4~ 27.9도, 최고기온은 26.5~30.1도를 보이겠고 18일 최저기온은 24~26도, 최고기온은 27~31도가 예보됐다.

20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일본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고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릴 수 있으니 하천변 및 지하차도 접근과 야영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에도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찾은 광주 북구 중흥동. 종량제 봉투와 각종 쓰레기들이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도로가 침수되고 있다. 정승우 기자

집중호우시 ‘낙뢰’ 주의… “30초내 천둥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광주·나주·담양 등 호우특보 ‘번쩍’ 후 15초 내 소리나면 5km 내 벼락친 것 피해 주의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지상으로 번개가 내리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낙뢰’가 칠 때는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이는 ‘30-30 규칙’을 지켜야 한다.

17일 오후 1시께 현재 광주,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무안, 함평 등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60mm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호우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때문에 북서쪽에서 남하해 들어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내리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낙뢰(벼락)도 일으킨다. 낙뢰는 구름에서 땅으로 치는 번개다. 현재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며 고도 10~13km까지 발달한 구름 내로 건조공기가 침투하면서 구름 내 수분이 증발, 해당 구역의 기온이 뚝 떨어져 열음알갱이와 물방울이 공존하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번개도 함께 치고 있다.

지상으로 치는 번개인 낙뢰는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낙뢰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인데 이 가운데 6건(19.4%)은 ‘심정지’ 사고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육지에 내려친 낙뢰는 총 14만5784회였다.

낙뢰가 칠 때는 ‘30-30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이다.

번개가 번쩍하고 30초 내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쳤다는 의미다. 번개를 보고 15초 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약 5km 거리에서 번개가 쳤다고 볼 수 있다.

낙뢰가 예상될 땐 우산·골프채 등 낙뢰를 유도할 수 있는 물건은 멀리 뒤흔다.

나무나 정자는 낙뢰를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맞기 쉬우므로 그 아래로 피해서는 안 되며 집에서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뒤흔다.

재산 피해는 피뢰침 등 피뢰설비를 설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적극 권장된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종량제 봉투·쓰레기에 막힌 배수로 광주 도심 도로 침수 피해 키웠다

호우경보 속 낙엽 등 물길 막다 차량 고립·주민들 맨손으로 제거

17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로 곳곳에서 침수 현상이 나타났다. 배수로 주변엔 종량제 봉투와 낙엽,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도로 위로 고이면서 차량 바퀴를 넘기 시작했고, 일부 구간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광주와 전남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단 시간에 집중된 폭우에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실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는 배수로

가 쓰레기로 막히자 주민들이 맨손으로 낙엽과 비닐봉투를 걷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출동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배수로를 긴급히 정비했지만, 한동안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배수로는 도로에 고인 빗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평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도심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매일 관내 취약지역의 배수로를 현장 순찰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모든 지역을 매일 점검하긴 어렵다”며 “시민들도 우천 전후엔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배수구 주변 정비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